

준우승에 뿔난 무리뉴 “게임은 끝났다…베일도 끝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레알 마드리드〉

맨유 이적설 시선 모은 베일, 잔류 일단락 지난해 부임 지단 감독 벌써 6번째 타이틀 무리뉴 “메달 중요치 않아” 꼬마에게 선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8월9일(한국시간)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경기를 펼쳤다. 2016~2017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가 2-1로 이겼다. 지난 시즌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 슈퍼컵에 나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젊은 선수 위주로 경기에 나섰다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단 한 경기만 치러졌지만 재미난 스토리가 많았다.

●전력보강 없이 웃은 레알 마드리드

매년 화려한 선수단을 구성하는 레알 마드리드. 하지만 2017~2018시즌을 앞두고는 눈에 띄는 스타급 선수 보강은 없었다. 이번 경기에도 지난 시즌 주축멤버 그대로 경기에 나섰다. 팀 훈련 합류가 늦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벤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막강했다. 전반 24분 카세미루, 후반 7분 이스코의 연속 골로 2-0으로 앞섰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컨디션은 썩 좋지 않았지만 두터운 미드필드의 힘을 바탕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격을 뿌리쳤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4년간 3차례나 슈퍼컵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다.

●브레이크 없는 지단 감독의 성공가도

레알 마드리드 지네딘 지단 감독은 팀의 지휘봉을 잡은 2016년 1월 이후 계속해서 우승컵을 추가하고 있다. 그는 각종 대회 결승전에서 5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8월9일(한국시간) 마케도니아 스코페 필립2세 아레나에서 열린 2017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1로 꺾은 뒤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스코페(마케도니아) | AP뉴시스

승을 거두며 5개의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UEFA 챔피언스리그 2회(2015~2016·2016~2017 시즌), 슈퍼컵 2회(2016·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1회(2016년) 등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2016~2017시즌 우승해 지단 감독은 사령탑 부임 이후 총 6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 1군 선수들과 함께 총 88경기를 치러 66승15무7패를 마크해 승률이 무려 75%에 달한다.

●시선을 모은 가레스 베일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은 이적시장에서 끊임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제기된 선수다. 레알 마드리드가 수시로 부상에 시달리는 베일에 대해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이적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AS모나코(프랑스)의 신성 킬리안 음바페를 데려오는데 성공하면 베일을 떠나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런 가운데 베일은 맨체

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제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게임은 끝났다. 베일이 앞으로 어디서 뭘지 결정됐다”며 베일의 영입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메달을 관중에게 선물한 무리뉴 감독

무리뉴 감독은 시상식을 마친 뒤 슈퍼컵 준우승 메달을 꼬마 관중에게 선물했다. 무리뉴 감독은 “나에게 메달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오

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러나 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에게는 좋은 선물이 됐을 수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결과엔 실망했지만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로 선발한 선수들에 대해선 만족감을 표했다. 무리뉴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 루카쿠와 미드필더 마티치는 좋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루카쿠는 1~2번의 좋은 득점찬스를 놓쳤지만 추격하는 골을 만들어내는 등 제몹을 다해줬다”라고 칭찬했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홈 텃새 못넘은 한국농구…8강행 ‘빨간불’

아시아컵 레바논전 패배 ‘편파 판정’ 논란 주포 이정현 부진…팀 3점슛 성공률 24%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이 레바논에 패했다. 한국은 8월9일(한국시간) 베이루트 누하이드 나와펠르 체육관에서 열린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개최국 레바논에 66-72로 졌다. 오세근(16점·7리바운드), 임동섭(16점·5리바운드), 김선형(15점·4리바운드·4어시스트) 등이 분전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1차전 패배로 한국은 조별리그 1위에게 주어지는 8강 직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1차전을 패한 한국은 11일 카자흐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빠이팠던 주포 이정현의 부진

한국은 주요 득점 루트인 외곽슛이 침묵했다. 임동섭만이 7개를 던져 3개를 성공시켰을 뿐, 팀 3점슛 성공률은 24%(25개 시도·6개 성공)에 그쳤다. 팀의 주포 역할을 기대했던 ‘9억2000만원의 사나이’ 이정현(리바운드·1어시스트)은 17분 43초를 뛰면서 5개의 3점슛을 던져 단 한 개도 넣지 못하는 등 무득점에 그쳤다. 또한 52-54까지 추격한 4쿼터 초반 3점슛 찬스를 놓치고 이어진 공격에서는 턴오버로 상대에게 공격권까지 내주는 등 승부처에서 전혀 이롭잖을 못했다. 허웅(3점)도 5개의 3점슛을 던져 단 1개만 성공시키는 데에 그쳤다. 열세가 예상된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37-39로 선전했지만, 상대에게 14개의 공격리바운드를 빼앗겨 타격이 적지 않았다.

●만만치 않았던 홈 텃새

레바논의 홈 텃새도 승부가 기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회 개막을 맞아 미셀 아운 대통령까지 이날 경기장을 찾아 관람할 정도로 레바논은 농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레바논 홈팬들은 일방적인 응원공세를 펼쳤다. 특히 대표팀에 복귀한 ‘레바논의 마이클 조던’ 파디 엘 카디비(14점·5리바운드·4어시스트)가 소개될 때에는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판정도 레바논 쪽으로 기울었다. 엘 카디비의 트래블링이 3~4차례 나왔지만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공격과정에서 레바논 선수가 팔꿈치를 휘둘러도 공격자파울이 지적되기는커녕 한국선수의 수비자 파울을 선언하는 장면까지 나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대한체육회, 내일 하계U대회 선수단 결단식

19~30일 대만…22개 종목 415명 출전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8월 11일 오후 3시 서울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29회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을 개최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2년마다 개최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여 명의 대학 스포츠 선수단이 한 곳에 모이는 국제종합경기대회다. 이번 대회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홍식 선수단장의 지휘 아래 육상, 수영, 유도, 펜

싱 등 22개 종목, 415명(선수 319명·경기임원 71명·본부임원 25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대회 개막을 한 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유병진 대학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선수단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선수단,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해 대회 출전의 결의를 다짐할 예정이다.

결단식은 선수단 소개 등 본 행사 후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도핑, 안전 등 의무 교육과 선수촌 생활 안내, 마케팅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선수단은 결단식을 시작으로 대회 출전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며, 본단은 17일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 OZ711편을 통해 타이베이로 출국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여름 럭셔리 골프 반바지 특가 판매 2점 39,800원

여름 평상복과 레포츠를 동시에~ 쿨한 터치감 여름 반바지!!

오렌지

겨자

베이지

머스터드

블랙

그레이

A형

B형

신축성과 핏감이 뛰어난 프리미엄 반바지 긴 여름이 시작됐다. 반바지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여름 패션의 핏감을 살려 제작한 반바지를 2점 39,800원에 원프로부터 판매한다. 두점의 반바지가 여름 멋쟁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다.

타이트하지 않고 넉넉한 밀 윗잇이 쿨한 터치감으로 다리의 열기를 식혀 주며, 타이트하지 않고 밀 윗잇이를 길게 제작해 중년 세대는 물론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지구 온난화로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빨리 오는 이상 기후 탓에 착용하기 딱 좋은 반바지라 하겠다.

사이즈 30, 32, 34, 36, 38, 40 판매가 2점 148,000 → 39,800원 (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222,000 → 59,7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2-0851-6991-11 예금주 김주기(원프로본)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